

전북도, 특별교부세 202억원 확보

올해 총 578억원... 지난해 대비 86% 증가 전국 시·도 배분된 특교세 규모 중 최다

전북도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으로, 23개 사업 20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63억원과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7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311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규모이다.

전북도는 이번 특교세 확보는 세수 부족으로 삭감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돼 가뭄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2024년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신산업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전북시대 준비를 위해 행안부에 수차례 방문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쟁점 실패로 전북지역의 침울한 분위기를 해소해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민안전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또 올 상반기에도 새만금 쟁점 국제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및 태풍 응급 대책 지원으로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9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은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2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5억원 △전북문화예술인화관 건립 20억원 △통행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방도 확장 포장 사업 20억원 등 특별자치도 개정에 담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시 갑작스러운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

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시설물(산책로, 친수시설 등) 선제적 출입 통제를 위한 하천 진출입구 차단시설 22억원 △수문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함으로써 홍수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15억원 △노후화된 도로구조물(가드레일, 표지판 등)과 산간지역 급경사지 구조물(낙석방지책, 수로 등) 교체를 위한 지방도 급경사지 구조물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55억원 등 도민안전 SOC사업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전북도의 어려움과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많은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2023 한국관광의 별 선정

사계절 정원, 치즈체험 등 지속가능 프로그램 우수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의 '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2023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 부문에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시상금 3백만원을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매력력이 뛰어난 관광지 부문에서 익산 마루사지로 수상한 이후 3년만에 한국관광의 별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지인, 단체, 인물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지난 8월 후보 추천 이후 전문가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계절 정원, 치즈체험 등 지속가능 프로그램 우수

를 다룬 꽃밭과 아쿠아페스티벌, 임실치즈축제, 임실산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치즈 피자 체험, 서바이벌 체험이 우수한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인정을 받아 전라북도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0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내외 홍보와 마케팅의 지원을 받게 되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미래모빌리티 업계 기술개발 상생 협약 체결

도내 상용차 업계 협력으로 지속 성장 발판 마련 기대

전북도가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중현 KGM커머셜 대표이사, 조영욱 KG S&C 대표이사,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KGM 커머셜·KG S&C·자동차융합기술원 간의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GM커머셜(구 에디슨모터스)의 전북도내 전기차 부품업체와의 기술협력, △KG S&C의 도내 특장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 △도내 미래자동차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상호 협력이다.

KGM커머셜(구, 에디슨모터스)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출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수행중인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기업으로 참여하는 등 도내 전기차 부품업체들과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중현 KGM커머셜 대표이사, 조영욱 KG S&C 대표이사,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G모빌리티의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특수목적의 특장차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KG S&C도 도내 특장차 기업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KG모빌리티와 전라북도간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등 향후 다양한

협력 관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승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중·대형 전기버스에 강점을 갖는 KG그룹사와 상용차 분야 핵심 기술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

과의 협업은 기술개발에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특장차(튜닝)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과 전북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재난 예경보시설과 지진가속도계측기 현장점검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 지진 등을 대비해 지난 12일 순창군 순창읍과 동계면 일원을 찾아 재난 예경보시설을 직접 점검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 내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 3,962개소와 지진가속도 계측기 96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예경보 시설의

CCTV 카메라 화질점검 및 전송 확인, 도와 시군간 통신상태 시험, 원격 음성통보시스템 경보 시험방송, 보안장비 및 전자시건 장치 확인, 지진가속도 계측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는 재난 예경보통합방송플랫폼을

설치, 클라우드 서버 이중화 작업을 통해 도 내에 설치된 3,962개소에 일제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재난 예경보를 발령해 도민들이 신속·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개관

익산시는 13일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 '복합문화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중오 익산시의장, 노영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복합문화센터는 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공건축물로 조성됐다. 28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됐으며 1층에는 전

시판매장, 라이브방송실, 사무실이 들었고, 2층은 식당과 체력단련실로 구성됐다.

전시판매장과 라이브방송실은 입주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또 식당과 체력단련실을 통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

센터에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태양광 발전설비와 건물 내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전력공급으로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냉·난방과 공기시스템 등 건물 관리에 효율성을 더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웃음코칭·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 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 - 6669, 010 - 7304 - 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2시
② 장소: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286 - 6678, 팩스: 287 - 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